

2007년 가을 부흥회 성령의 감동 받으십시오! Anointing



- 가정예배 드리는 법
- 공동의회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국학교 체험 학습
- SALT and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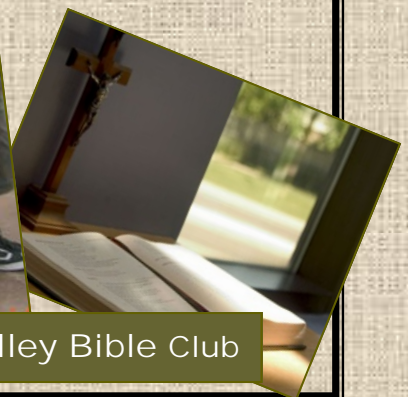
2007 Tennis Club: Thank You Coach Mr. Jin(진대성)



Ocean City Student Leadership retreat



김모세 전도사가 인도하는 Seneca Valley Bible Club





정하나

2007년
10월 28일



김요한

하나님의
자녀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장미진



엄영희



선교사 편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온 편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남편은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샘안양병원 이상택 이사장님에게 전화로 저희들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남편에게 심장테스트를 한번 해보
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초음파 촬영의 결과는 심장관상동맥이 모두 석회질로 막혀 있고 작은 혈관도
하나가 막혀서 거의 심장이 마비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종양, 김상원 선교사

존경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가정과 섬
기시는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빕니다.

저는 금년 6월 25일 스와지 기독교대학 설립 총회
에 참석하기 위하여 6월 16일 한국에 들어와 한국
중앙교회 선교관에 머물면서 설립 총회를 마치고
다음 날인 26일 샘안양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
습니다. 결과에 따라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어 다음
날 심혈관 검사를 하던 중 심장 동맥이 모두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아산병원에
서 수술을 받으
라는 심장 전문
의사의 말을 듣
고 눈앞이 캄캄
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심
장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아산병
원에 오니 수술
을 받기 위하여
몇 개월 동안 대
기 중인 환자들
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
교회 노귀영 장
로님을 통하여
아산병원의 최정
숙 기획실 차장
을 만나도록 인

도하셔서 저의 수술 일정을 받는데 적극 도움을 주
었습니다.

최정숙 차장의 도움으로 명성교회 집사이며, 심
장흉부외과 전문의인 이재원 교수를 만나 7월 16
일 병원에 입원하여 19일에 수술을 받도록 날짜를
정해 놓고, 약을 복용하며 기다리는데 수술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선교지에 대한 염려로 일주일 동안
불면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러던 중 군산 흥남교회의 김동태 목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선교보고를 하던 중 성령님의 강한 임
재로 막혔던 기도
가 시작되고, 예
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밀어 냈
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미국과 한
국으로부터 저의
수술을 위한 수많
은 동역자들의 기
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느
껴지며 제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수술 일주일 앞
두고 아프리카와
유럽, 미국과 한
국에서 동역자님
들로부터 기도하





고 있다는 전화와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7월 19일 아침 수술실로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저를 감싸 안고 가시는 것을 느끼며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6시간 30분 동안의 수술을 받고 깨어 보니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코와 입, 목과 몸에 호스들이 꽂혀있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첫날밤에는 혈압이 많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잠이 들면 간호사가 흔들어 깨워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장동맥 우회 수술을 위하여 팔의 동맥과 다리의 정맥, 그리고 가슴혈관들을 잘라내어 심장의 동맥에 접목시키는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 전 병원에서 저의 몸 상태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며 혈압도 정상이어서 수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2개월 동안 가슴의 뼈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똑바로 누워 있어야 했으며, 눕고 일어나는 것을 혼자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슴과 팔, 다리의 수술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과 하루 8번의 약을 복용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10월 중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16일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하여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6월 16일 한국에 와서 현재까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마비단계까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빠른 회복으로 수술 3개월 만에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도

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장검사를 받게 해 주신 샘 안양병원 이상택 이사장님, 조속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산병원의 최정숙 기획실 차장님, 한국에서 심장흉부의 일인자라 불리우는 이재원 교수님의 친절함,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퇴원하여 회복기를 보내는 4개월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관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국중앙교회, 저의 수술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과 염려로 기도하여 주신 동역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회복하는 중에 있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기쁘고 행복합니다.

김종양 선교사 드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남편의 수술과 병원생활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과정에 신실하게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간증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3월부터 10월 초까지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선교팀들의 일정으로 지난 20여년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5일 아프리카에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서 설립받기인들이 모여 총회를 한다고,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선교팀의 일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선교지 방문일정을 계획하고 있던(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20명의 한 팀이 이유 없이 일정을 취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 시기는 아프리카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었습니다. 단기선교팀의 방문 일정이 취소되어 저희들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총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면서 한국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서둘러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6월 15일 아프리카를 출발하여 다음 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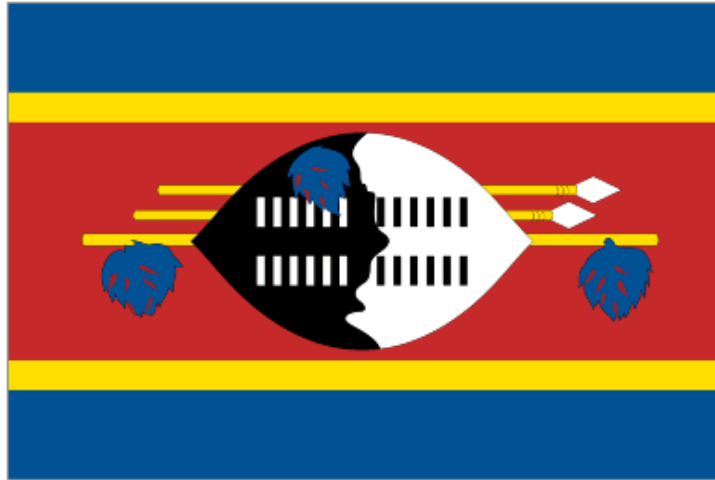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남편은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안양에 소개하고 있는 샘안양병원

이상택 이사장님에게 전화로 저희들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남편에게 심장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사장님에게 이제 도착하여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보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의가 아주 완강하여 총회를 끝내고 바로 그 다음(26일)날 심장 검사를 할 것을 약속하고 그때부터 25일 총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2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의사들과 교수들, 그리고 목사님들, 각 계의 유명인사들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은혜롭게 끝내고, 다음(26일)날 저희들은 안양에 있는 샘안양병원에 심장체크와 다른 부분의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심장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큰 병원에 의뢰를 해 보아야 한다고 하여 다음 날인 27일 다시 샘안양병원에 가서 팔의 동맥을 뚫고 약을 투입하여 심장초음파 촬영을 하였습니다.

초음파 촬영의 결과는 심장관상동맥이 모두 석회질로 막혀 있고 작은 혈관도 하나가 막혀서 거의 심장이 마비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이 몸으로 어떻게 1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올 수 있었는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심장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마침 남편의 심장을 검사한 샘안양병원의 의사가 한국 굴지의 병원인 현대 아산병원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그곳에 선배들이 있어 그 병원에 속히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스와질랜드 국기

며칠 후 아산병원에 가서 심장흉부외과, 내과 의사들과 상담을 한 후 7월 16일 입원을 하고 19일 수술을 하자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 4일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는 일정은 취소되었고 저희들은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9일 아침 7시

에 수술실로 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수술하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6시간 30분의 시간은 저와 딸 학영이,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찾아오신 여러 기도의 동역자님들과 친척, 친지들에게는 마치 며칠을 기다린 것같은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영주권을 신청한 관계로 미국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저희 아들 김학수 전도사 내외의 마음도 저희들과 같은 심정이었겠지요.

네 줄이나 막혀있는 심장의 동맥혈관을 우회로 이어주는 작업을 위하여 팔의 동맥과 다리의 정맥, 그리고 가슴의 혈관을 끊어서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한 남편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의 엔진을 갈아 끼운 것과 같은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동안 아프리카 7나라의 동역자들과, 한국의 후원교회들, 유럽(독일, 영국, 스페인)의 동역자들, 미국과 캐나다의 동역자들 등 13개국에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심장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현대 아산병원에서, 사랑이 많고 친절환 아산병원의 기획실 차장인 최정숙과장,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1인자라고 하는 의사(이재원교수)를 통하여 심장수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편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학설립을 위하여 더 큰일을 맡기시려고 막혀 있는 심장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라 믿으며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열고 뼈를 자르고 심장을 들어내어 팔과 다리와 가슴 혈관을 잘라서 관상동맥에 이은 큰 수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울어 병실을 지키고 있던 이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박 3일간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던 중환자실을 떠나 수술한지 3일 만에 회복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입원한지 2주 후에 퇴원하여 현재는 중국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중앙교회 선교관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한국중앙교회에서 아산병원은 올림픽대교를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저희들을 사랑하는 여러 동역자님들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보리 교회의 이필재 목사님을 통하여 병원비를 담당하여 주셨고, 여러 교회들도 병원비를 위한 위로금과 저희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물질과 기도로 돕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어 마지막 시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한국에 오게 하시고 심장검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6월 방문을 계획했던 선교팀의 방문일정을 취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국에 보내시고, 7월 4일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심장을 검사하게 하시고, 수술을 하게 하시고, 수술을 통하여 13개국의 동역자들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많은 동역자들의 가슴을 울리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수술 후 회복을 돕는다고 도가니탕을 끓이고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1시간이 넘도록 지하철을 타시고 커다란 들통에 국을 담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오신 연로하신 장로님,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보신탕을 사가지고 들고 오신 장로님, 군산에서부터 김치와 계장을 담아 오시고 이것저것 먹을거리를 챙겨 오신 목사님 내외분과 집사님, 입맛을 돋우시라고 서해안의 명물인

온갖 조개종류를 10여일 간격으로 택배로 보내 주시던 태안의 어느 전도사님, 차량으로 돕겠다고 시간을 내어 자동차를 몰고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 무엇을 좋아 하실지 몰라 봉투를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많은 동역자님들, 그리고 사랑을 전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격려하시며 찾아 주시는 분들, 살아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면서 두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여 말쑹하시는 목사님, 살아계심에 감사하다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오신 장로님 내외분,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목사님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갈 수 없는 남편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복숭아를 팔아 이익금을 모두 봉투에 담아 오신 농촌교회의 목사님, 환경이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기도원과 수양관에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휴식하라면서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도우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대신하러면서 찰떡을 만들어오신 집사님, 선교관 사용이 2-3주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4개월 동안 선교관 사용을 허락하신 한국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회, 그 외에도 받은 사랑을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 더 이상 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병 대수술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 있느냐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복이 빠르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눈물겨운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회복에 좋다는 의사들의 조언을 듣고는 매일마다 하루 2번씩 2시간을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을 천천히 걸으며 최선을 다하면서 의사의 소견을 따르고 있는 남편은 아프리카가 너무나 그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동역자님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일들을 변함없이 함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동안의 저의 심정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동사역자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중앙교회 선교관에서 김상원 드림. 



떡볶이 만드는 날

지난 10월 13일 헬로쉽 한국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한데 어울려 체험 학습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다.

글 - 국화반 교사 김영식

토요일 아침이 오늘따라 무척 부산한 모습이다. 정광미 교무주임 선생님이 1층과 2층을 오르락 내리락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밀차에 싣고 태권도를 하는 장소로 옮기고 계셨다. 무슨 일일까?

다름 아닌 오늘이 체험학습 떡볶이를 만드는 날이다. 아이들은 한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아우성대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 오늘 떡볶이 만드어요?”, “언제 만드어요?” 하며 계속 질문을 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한글을 배우는 것보다 떡볶이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듯 했다. 한글 수업 1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끝내고 체험 학습을 하러 헬로쉽 홀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을 했다.

선생님들이 테이블에 떡볶이 만들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 만들기엔 필요한 도구들과 떡볶이 떡, 오뎅, 양파, 파, 양배추, 홍당무, 그리고 고추장 양념이 준비되어졌다. 학년이 높은 장미반, 창포반 예쁜 언니, 누나들은 어린 친구들 반을 돕기 위해 각 테이블로 나누어 도우미 역할을 해 주었다.

다른 학생들은 다 들어왔는데 ‘어라! 막내 개나리 반 학생들이 안보이네’ 하고 있는데 한쪽 문에서 호각 소리가 뻑, 뻑 하고 들리며 병아리 같은 모습의 꼬마 학생들이 선생님 뒤를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줄을 맞춰 들어오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워 보이던지... 그리고는 테이블 뒤로 가서 줄을 맞춰 쪼로록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황유빈과 지현의 어머니께서 떡볶이는 이렇게 만드어요.. 라는 설명을 시작으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각 반의 테이블마다 시끌벅적 야단이다. “선생님, 그건 제가 넣을게요” “선생님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저을 게요” 아

무튼 우리 아이들이 모두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다. 너무나 즐겁게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에 선생님이나 도우미로 오신 부모님들도 흐뭇해하는 모습이었다.

각 테이블의 떡볶이가 하나, 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어라! 국화 반 떡볶이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네?’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 불은 있는데 물이 끓지 않네요! 황당한 선생님 표정과 아이들의 의심 어린 표정(‘선생님 떡볶이 만드실 줄 아나?’ 하는 표정 이었다). 불을 확인해보니 가스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스를 바꿨더니 물이 금방 끓어 떡볶이를 완성했다.

“어디 볼까, 어느 반 떡볶이가 가장 맛있나” 하며 교장선생님께서 시식회를 하고 계셨다. 개나리 반 아이들의 떡볶이는 “음~~ 간장 떡볶이 맛있군, 매운 것 못먹는 아이들이 좋아하겠군”, 코스모스 반 떡볶이는 “음~~조금 싱거운 느낌이야.” “민들레 반은 신기한 맛이 나는군” 아카시아, 해바라기, 국화 반 떡볶이는 음~~ 매콤, 달콤 즐거운 표정을 내시며 하나 하나 맛을 보셨다.

아이들은 작은 볼에 떡볶이를 담아 연신 호호 불어가며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아이 매워!” 하며 먹고 있는 아이들, “선생님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요” 하는 아이들, 제각기 맛을 음미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도움을 주신 부모님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체험 학습 떡볶이 만들기가 이루어졌다.

한국 장터의 전통 먹거리 중의 하나인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한국의 맛있는 먹거리 문화를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체험학습의 장점이구나 생각하니 선생님들이나 참여한 부모님들 모두 흐뭇함과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장승민 목사

십자가와 오순절

아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도 지실 수 있고, 성령님도 지실 수 있었잖아요.



거의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시간에 첫째 아들 녀석이 손을 들었다. 또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아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도 지실 수 있고, 성령님도 지실 수 있었잖아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의 눈에 비친 그것보다 더 실감나게 보이거나 보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의 물음은 기성화되기 쉬운 장년 성경 공부나 신학교 강의실에서 맞볼 수 없는 날카로움과 위트가 있다.

그렇다. 언젠가 천상에 회의가 있었다. 성부 하나님은 아주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셨다. 자꾸만 멀어져만 가는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견딜 수 없었다. 심판하기 보다 사랑하기가 어렵다.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는 용서의 대가를 언제나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참 후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차마 말하기 어려운 말이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 안에 있지 않았던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서

술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5-8).”

그 날 아버지는 정확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다. 그것은 분명 깨닫게 될 자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당사자는 자신을 비워야만 했다. 종의 형체를 입어야만 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주길 원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그 저주스런 나무에 매달려주길 원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아들과 딸들을 돌이키길 아버지는 원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어찌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아들은 기꺼이 그 일에 자원하셨다. 아들의 자기부인은 그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성령님은 아들의 결정을 말없이 지켜 보셨다. 그리고 성부께 자신은 아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기념할 것이며,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아들의 증인들을 일으키는 그 다음 과업에 자원하셨다(요15:26). 그 결정이 장차 서로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안겨다 줄지 모두 아셨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자원하셨다. 어떤 이견도 삼위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다. 그 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며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삶의 절정이었다. 아버지와 세상은 다시 연결되었다. 그 십자가는 가는 세대나 오는 세대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세상을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

는 성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환호나 돈이나 명예나 넓은 집이나 럭셔리한 승용차나 여유로운 노후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신앙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의 초점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마 16:22).”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16:24-25).”

시몬 베드로는 이 자기부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기까지 꼬박 삼 년이 걸렸다. 이 세상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치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은 절실히 요구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장 오순절 성령세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토기장이가 좋은 흙을 골라 토기를 만들어 가듯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셨다. 그들은 장차 임할 과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했다.

솔직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열 두 제자를 놓고 보면 인재라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한마디로 평범 이하였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소외된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어부 아니면 세리 아니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땅끝은 고사하고 동료 한 명도 따



뜻하게 품어줄 수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힘있게 조명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었다.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대했다. 아, 얼마나 철부지 같은 시간이었던가. 실상을 깨닫는 순간 허상은 깨어져버렸다. 그들은 비로서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2:32).” 그리고 그들은 폭풍처럼 노도처럼 사용되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요, 그들의 목표도 그리스도요, 그들의 이름도 그리스도를 따라 붙여졌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아니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다.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때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안되었고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세우거나 그런 틈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지만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즐거워했다 (행5:41).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왜 자기부인이 가능한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그 사랑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깨끗케 한다. 그래서 자기부인은 거룩한 사랑(아카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부단히 사모했던 고린도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부인으로서 사랑과 영적인 능력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다 (고전13장).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면서 능력 이전에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자기부인이 아니라 자기과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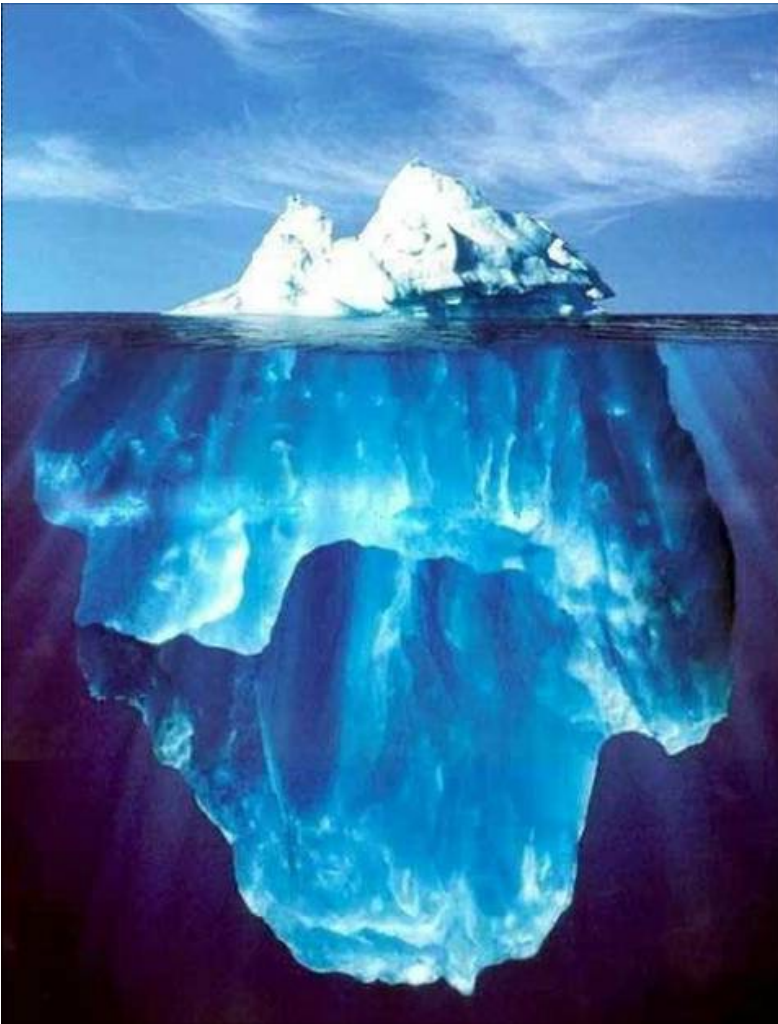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하는 폭력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일구신 교회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과시로 인하여 얼마나 수욕을 당했던가. 자기부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반면, 자기과시는 몸된 지체들을 정욕과 탐욕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명백한 죄악이다. 우리는 이 폭력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자기부인은 또한 자기비하와 다르다. 자기비하는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에 비롯되지만, 자기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발로이며, 그 분의 원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며, 그 분이 이미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균형감이란 명확한 자기인식으로 부터 온다.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자기과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는 살 가망이 전혀 없는 죄인된 나의 실상을 여지없이 폭로한다. 십자가는 자기과시의 허망한 가면을 단번에 벗겨 내버린다. 그리고 이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사실상 그 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신다.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통과한 동시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다. 그는 십자가로 귀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부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그의 십자가를 세우셨듯이,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의 십자가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 분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오늘도 세워진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은 자기과시에 불과하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름부으심은 거짓된 기름부으심이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십자가는 오순절 앞에 있고, 오순절은 언제나 십자가를 가르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키신다.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이 신비한 상호작용 (interaction)을 놓쳐서는 안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로 귀결되는 자기부인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에서 우리란 몇 가지를 제한한다면 첫째, 일기를 쓰라. 인간이란 전체 면적의 10%만 수면 위에 올라와있고, 나머지 90%는 수면 밑에 잠겨있는 빙산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수면 위의 10%에 집착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재산, 학위, 직업, 은사, 설교, 교인의 수 같은 것으로 성공을 평가하려 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10%에 불과하다.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는 부분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수면 밑의 90%이다. 즉 우리의 내면이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 (대하16:9).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나가는 한마디에 우리

의 실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쓰기는 일상 속에 감춰진 자신의 90%를 솔직하게 열어보는 기회가 된다. 한국교회가 경건의 시간과 골방기도의 시간을 강조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살펴볼 겨를도 없이 틀에 박힌 시간처럼 형식화되어 가는 풍조가 안타깝다.

둘째, 가정예배를 드리라.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은 수면 위의 10%를 보는 곳이 아니라 수면 밑의 90%를 보는 곳이다. 소위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균형 잡힌 성령님과 교제라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성령충만을 강조한 후 실천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가정생활이었다 (엡5장).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음란과 성적인 유혹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속고 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 사귄으로 인도하신다. 가정예배를 또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가족과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활용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대화하라. 살아가는 일상을 나누라. 오늘 하루 당신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나누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경청하라.

끝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직 우리가 드러보지 못한 자기부인의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다. 그들을 친구로 얻으라. 존 웨슬리는 “독단적인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같다”고 했다. 즉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독단에 빠지기 쉽고 그것은 또 다시 허황된 자기과시로 이어진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금한게 많다. 동시에 열망만큼 오류에 빠질 위험도 많다.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길 소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견고한 진을 세워가라. 



사도바울 (7)

예루살렘의 상황

누가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도행전 12장에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로 인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보내는 부조를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글 - 오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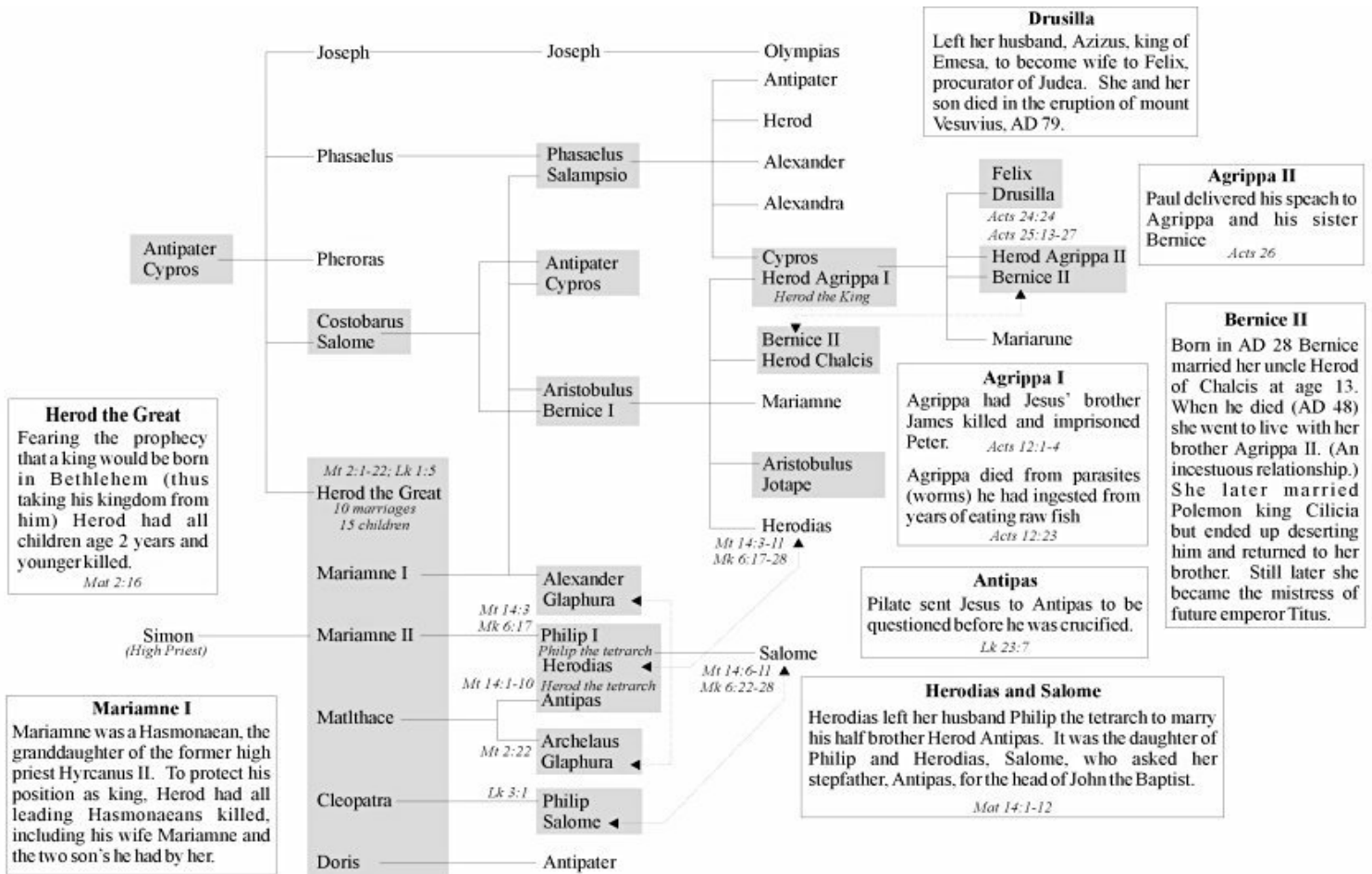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인들의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들은 왜 사도들을 만나 직접 건네지 않았을까?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그 때에” 헤롯왕이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그 예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2절)과 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비록 베드로는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형제들에게 일

의 사정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17절)고 누가는 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예루살렘의 지도력이 사도들에게서 장로들에게 잠시 넘어갔을 수 있고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장로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핍박을 가하고 있는 헤롯왕은 누구일까?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왕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다른 아님 헤롯 아그립바 1





세이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아리스토틀루스와 베니게 (헤롯 대왕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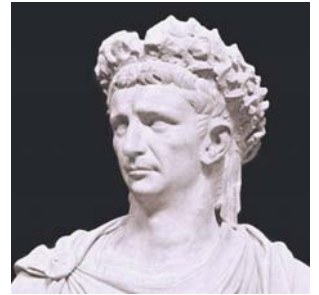
헤롯 대왕은 통치 말기에 이르러 잔학하고 살인광적인 늙은이로 변해갔는데, 헤롯 아그립마 1세가 세 살이었을 무렵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틀루스는 살인광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죽게 된다. 이에 어머니 베니게는 다섯살 난 헤롯 아그립마 1세를 데리고 로마로 옮겨갔다.

헤롯 아그립마 1세는 로마에서 로마 황제 가족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특별히 티베리우스 (Tiberius) 황제의 양자인 가이우스 칼리굴라 (Gaius Caligula)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헤롯 아그립마 1세는 가이우스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던 중, 황제가 죽는다면 좋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였다. 이 말은 티베리우스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헤롯 아그립마 1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티베리우스는 곧 죽게 되어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헤롯 아그립마 1세는 칼리굴라에 의해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북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가이우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 당하였다. 이 때 헤롯 아그립마 1세는 민첩하게 대처하여 칼리굴라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 (Claudius)가 41년 황제에 자리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클라우디우스는 헤롯 아그립마 1세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헤롯 아그립마 1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전 지역을 다시 회복한 셈이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립마 1세는 41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유대인(특히 바리새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헤롯 아그립마 1세는 당시 확장되고 있는 초대 교회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에 동조하여 초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첫부분에서 핍박의 현장을 전하고 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행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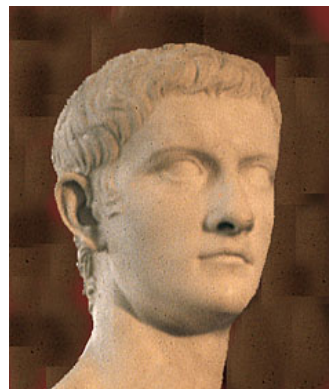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아그립마 1세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 하루 전날 밤 천사가 옥 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거리로 나온 베드로는 여러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였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테’라 하는 여자 하인이 나왔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임을 바로 알아차린 로테는 대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반응은 너무나 당연했다. “네가 미쳤다” 그러나 로테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거듭 말하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하였다.

천사라? 그들은 왜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오히려 ‘유령’이나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 황제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소리지르는 말이 ‘유령’이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마 14:26, 막 6:49)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첫 반응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눅 24:37)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던 형제들은 베드로의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의 말로 끝내셨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

유대인에게 있어서 수호천사의 개념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천사)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으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창 48:16)

베드로 자신 역시 옥에서 풀려나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행 12: 11)

또한 유대인들은 천사가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문밖에서 있다는 로데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옥을 벗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 전해주고 다른 곳으로 갔다. 어디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는 이어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최후에 대해 전하고 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연설)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행 12:21-23)


헤롯 아그립바 1세는 4년간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44년에 죽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느 날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은으로 짠 옷을 입고 가이사라의 거대한 원형 극장에 들어갔는데, 해가 뜨면서 빛의 반사로 은으로 만든 옷이 찬란하게 비치자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사람들이 신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조금 후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올빼미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배와 가슴의 통증으로 앓다가 닷새 만에 죽고 말았다.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른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초대교회를 핍박하였던 헤롯 아그립바. 누가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의했다.

누가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도행전 12장에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보내는 부조를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누가는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12장을 끝마치고 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행 12:25)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나이 어린 사촌 동생으로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으로 갔을 당시 그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가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수수께끼의 인물이다. 마가는 한때 사도 바울의 협력자로 일하였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의 가까운 협력자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대훈 장로



김덕규 장로

2007년 - 2008년 회계연도 공동의회

2007년 10월 14일(일)

이사 / 운영위원 인준



* 커버넌트 빌리지: 김원기, 마이클 강, 이양호, 장형열, 정평희

* 커버넌트 크리스찬 학교: 김원기, 김혜정, 김티나, 이대훈, 정대영

* 세계선교센터 운영위원 인준 명단: 김기호, 김덕원, 김명숙,
김은주, 김정실2, 김창순, 박지현, 송용섭, 이연일, 정대영,
채재진, 최재원, 최현숙

* 평신도 훈련센터 운영위원 인준 명단:

지도 목회자: 장승민 센터장: 정명철 총무: 이종두

운영위원: 장승민, 정명철, 이종두, 김경자, 김정실, 복진웅, 지용한

교문: 이양호 장로

공동의회 참석한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MD 김덕원 VA 지용한

안수집사: MD 김성호 신덕준 VA 이광열 이용수

권사: MD 김경자 이명숙 VA 김순범 김해순 이정숙 정정희





헬로십 교회 2007 가을

성령의 기

Anoin

in the Hol

10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예배에 기름 부으심

10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기도에 기름 부으심

10월 6일(토) 오후 7시
사역에 기름 부으심





부흥회 www.Fellowshipusa.com

름 부으심!

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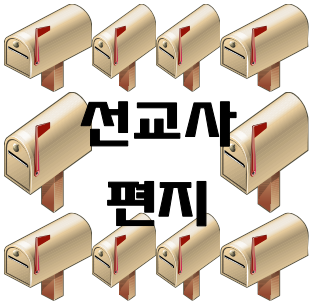
ly Spirit

(Anointing in Worship)

(Anointing in Prayer)

(Anointing in Ministry)



나의 멘토 배형규 목사님

지금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저들이 언젠가는 아마 오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당신의 피를 통해 알 수 있겠지요.

이요셉 이에임 선교사

故배형규 목사님을 생각하며...

원하지 않은 대학교와 학과에 진학하여 늘 불만에 쌓여 있던 대학 1학년 시절, 감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실천을 통해 체계 알려주신 배 목사님... 평소 목사님 삶의 반에 반이라도 따라 갈 수만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늘 고백하곤 하였는데 아직도 당신 삶의 반에 반을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제 삶을 보며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때가 올까요?

90년 어느 겨울 함께 참석하였던 세미나에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의 '빛진 자 신앙'을 함께 붙잡고 내려왔었지요. 그 때 깨달았던 그 빛을 갠기 위해 저는 인도네시아 D-종족을 향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빛을 갠기 위해 아프리카 사막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네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땅에 흘리신 당신의 피가 언젠가는 아마 오래지 않아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되겠지요. 지금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저들이 언젠가는 아마 오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당신의 피를 통해 알 수 있겠지요.

저 역시 이곳 인도네시아 D-종족 땅에서 주님 피의 의미를 심으며 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당신 삶의 반에 반을 따라잡아 D-종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배 목사님, 형규 순장님, 아니 형규 형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가

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당신을 꼭 먼저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삶을 닮기 원하는 부족한 순원 요셉...

한국방문

故배형규 목사님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순교하신 배 목사님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CCC를 통해 만난 선배요, 순장님이요, 목사님으로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늘 존경하며 그 분의 삶을 반에 반이라도 따라가기를 소원하던 저의 멘토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평소 고인이 말씀하신 장례식(영결식)은 영원히 이별하는 슬픈 날이 아니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환송이며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자리라는 뜻에 따라 천국환송 예배라고 명명된 장례 예배가 슬프지만 아름다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동안 여러 후원교회와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 모임(구역)을 만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저를 기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하거나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크며, 다음 방문 시 꼭 연락을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과의 관계

저희가 1년간 살아가는 이곳은 워낙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저희의 신분은 이미 노출되



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저희에 대한 소문이 나있더군요. 각 가정마다 현지인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주변 현지인 마을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계획하였던 집 주변 캄뵙(현지인 마을) 동네를 다니면서 친구 사귀거나 이슬람 회당에서 이슬람 공부 등은 잠시 미루었습니다.

대신 조금씩 조금씩 이곳 사람들과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여서 인지 한국인들에 대해 자세를 낮추고 공경하는 태도를 잘 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하식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닌것을 좀 더 열린 관계를 가지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과 동시에 우월감의 혼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가까이 지내는 한 부인과 운전기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멀리 떨어져서 주말에 집에 오고 부인 혼자 아이들 학교를 보내면서 집안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인 운전기사를 다루는 게 쉽지 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기사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 기사가 크게 화를 내어서 제가 급하게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사는 무척 화가 나있었고 보통의 인도네시아인 같지 않게 거칠게 화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금 직장을 잃으면 가족생계를 어떻게 꾸려가며 아이들 학비, 지금 가지고 있는 빚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열하며 이 부인을 원망하고, 협박조로 한달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겨우 두 달 일을 하였고 일하는 자세가 좋지 않아 해고되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평소에 조용하며 늘 웃는 사람들이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며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언젠가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가 부인에게 복수하겠다고, 새로운 기사를 못 구하도록 방해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이곳 스타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화제를 돌리다가 거의 1시간가량 지난 뒤 다른 직장을 찾는 시간을 위해

일주일치 봉급을 더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흥분해 있는 그가 속내를 드러내는데 무슬림으로서 기독교인인 그 부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기독교인이 무슬림보다 못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무슬림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심판날 무슬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유일한 알라(하나님)를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흠뻑 놀라다가 이슬람 용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하자 기독교인임을 눈치 채고 저 역시 무시하며, 그와 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일지라도 종교적 구별이 되는 시기에는 건너기 힘든 강처럼 먼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하고 선을 많이 베풀어도 근본적인 종교적 문제로서는 서로 접근하기가 힘들며, 무슬림에게 복음의 증거는 사람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야 합니다. 무슬림들과 정말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가져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 할 수 있을 때 삶의 영향력 뿐 아니라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마단

9월 13일부터 한 달간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 금식 기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라마단 금식에 참여하였으나, 한국에서 바로 돌아오자마자 금식에 동참하고 또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은 탓인지 육체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 1주일 후 멈추었습니다. 라마단 금식을 통해 공장 내 근로자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친구 A.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공장직원 A는 매우 열심히 이슬람 신자입니다. 알라(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마음 자세가 참 진지하고 이슬람 신앙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하곤 합니다.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는 자신의 마을 회

당에서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이맘'이더군요.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저녁 회당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의 동네 회당에 하루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이슬람의 공식적 집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없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며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무슬림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곳의 한국 사람과 현지인들의 관계는 부자 대 가난한 자, 고용주 대 피고용인, 관리자 대 부하직원의 상하 관계이면서 기독교인 대 무슬림의 종교적 담을 쌓고 있는 왜곡된 관계인데, 이 사이에서 벽을 뚫고 왕래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인 학교생활은 여러 친구들을 사귀며 재미있어 합니다. 교과 내용이나 분위기가 예전 학교에 비



해 많이 달라서 어설픈 때도 있지만 학생 대부분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고 외모나 정서가 비슷해서인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밝아졌고 말도 말이 늘어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하곤 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가장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오는데, 경제적 상황이 매우 다른 것(엄청난 부자) 때문에 자칫 상처를 받지 않을까 기우를 해보기도 합니다. 상은 유치원 생활을 씩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통

학버스에 올지 않고 스스로 올라타고, 교실에서도 진지하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어찌면 이렇게도 끓이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하지만 지금껏 심각하게 아프지 않고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

초등부 교사와 룸마더 모임

PTA 회장 차옥순

총무 김경혜

회계 방인선



SALT and Light Ministry

Ministry Lead: Pastor Erik

Members: Irene Choi, Mike and Jane Chung, Seth and Sunmi Hammontree, Mina Kim, Hank Lapa, and Christine Rhee

1. Accomplishments
 - a. Completed 3rd year of Christmas Child
 - b. Participated in our 2nd Angel Tree project
 - c. Advertised by video of the various ministries and had a great response from the congregation
 - i. Had approximately 15 people attend a meeting expressing their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ministry
 - ii. Mike and Jane with Lisa Keem will continue as members of the SALT and Light them representing the Virginia campus
 - d. Joined McLean Bible Church in a newly formed DC-VA-MD disabilities network
 - i. Forum to share our ministries, what is happening in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and receiving information from experts in this field
2. Things we can improve
 - a. As a ministry we need to advertise much more frequently
 - i. Working with Na Young and the newly formed media ministry for promotional ideas, presentations, fliers, etc.
 - b. We need to be more consistent in what we offer and the events we need to coordinate.
 - c. Utilize the oikos system for promotion of events - not relying on mass communication Sunday morning
 - i. Looking into creating a newsletter to be inserted monthly in the bulletin and sent to oikos leaders
 - d. Need to utilize the team representatives to take charge of ministries and form their own teams
 - e. Advertise that SALT and Light is a ministry that will assist those in the congregation that have a heart for a certain ministry we are not currently involved
3. Things that we want to do in FY2008
 - a. We added 3 new prospective members: Erin Kwon (Timothy representative), Lisa Keem and Eric So.
 - b. Health Fair for Korean and English Congregation
 - i. Free consultation from Montgomery County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 c. Operation Christmas Child
 - i. We are looking into introducing this event to the Korean congregation
 - ii. Mike and Jane Chung and Lisa Keem are introducing this to the Virginia campus this year for both the Korean and English congregations.
 - d. Angel Tree
 - i. We are starting early this year with the intent of having the children pick up their gifts at church after a small Christmas service.
 - e. Looking more into respite care for special needs children in the Germantown area
 - i. Continuing to work with McLean Bible Church - meeting 1/quarter with area churches
 - ii. Will be working with Jean Chang and our Oasis ministry
 - f. Montgomery volunteer services
 - i. Will offer this on a monthly basis for those that would like to volunteer in the community
 - g. Recently spoke with rep from habitat for Humanity - Frederick chapter
 - i. They have just started projects in the Frederick area and, unlike Montgomery County, have no waiting list.
 - h. NIH
 - i. Christine Rhee is leading this effort to work with children suffering from terminally ill diseases.
 - i. Walter Reed
 - i. Continued support to Hank as he cares for our wounded veterans
 - j. Longer term need to start looking at starting a food pantry at church
 - i. Very difficulty logistically - need to do much more research

가정예배 드리는 법

장승민 목사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마당입니다. 가정예배는 그 마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가정제단을 쌓았습니다. 교회활동의 대부분이 세대별로 나눠져서 이뤄지는 요즘 실정에서, 부모세대의 신앙을 자녀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하나의 대안이 가정예배라 여겨집니다.

시간은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좋겠지요. 저희 가정은 보통 밤 9시쯤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빠 또는 엄마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대표기도나 예배인도를 맡겨보시면 의외로 잘해냅니다. 지루하지 않게 30분 정도 갖으시구요 대신 꾸준히 이어가게 중요하겠죠.

순서는 틀에 매이지 마세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드리고 싶을 때에는 찬송가 앞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읽게하시면 한글공부에도 도움이 됩니

다. 무엇보다도 전달식이 아닌 대화식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날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세요. 한글이 익숙하지 않으면 영어로 읽고 말하게 하세요.

저는 우선적으로 잠언을 권합니다. 잠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담긴 책입니다. 세속적인 교육방법과 차별화된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또 자녀된 자들에게 마땅히 기대하시는 보화같은 교훈들이 단순하면서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닌 교훈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질문하고 대화하기에는 더 용이합니다.

예를들면, 잠언1장1-6절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 잠언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쓴 건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지혜로운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



을 줄꼬'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했던 열왕기상3장9절을 살짝 설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할거니?” 묻고 자녀들의 소망을 들어보세요. 아빠 엄마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정예배를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세요. 많은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본문을 질문형으로 바꿔서 한 두개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언을 다 마치시면 자녀들에게 다음에는 어떤 책이 읽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흥미로워하는 책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자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세요.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www.google.com 에다 ‘가정예배’를 입력하면 많은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대화식이 아닌 전달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아는 만큼 나누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찬양은 자녀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같은 짧은 곡을 몇 번 반복해서 부르세요. 교회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불러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주기도문을 예배 마침기도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빠 또는 엄마의 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에게 저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어떤 분의 안수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장소도 한 곳 만 고집하지 마세요. 안방에서 드렸다가 아이들 방으로 옮겨도 보시고 거실도 좋습니다.

니다. 꼭 집안에서만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날씨가 선선한 날이면 산책을 하면서 또는 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벤치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깐 우선 일주일에 한번만 시도해보세요. 월요일은 주일예배와 일상으로 연결되는 날이면서 느슨해지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로 갈수록 많은 활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저녁을 추천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큰 축복입니다. 만 4년 전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드리기 시작한 가정예배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쉽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아빠 엄마랑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흠뻑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성경적 창조론 노아의 방주 (3)

방주의 안정성

이 세상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물 위에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배의 비율도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가능할 뿐이었다.

글 - 오장석

노아 방주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결하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삼층으로 할찌니라” (창 6:14-16)

이 세 구절 안에 방주의 모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그렇다고 노아가 단순히 이 세 구절에 나타난 정보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셨던 것과 같이 노아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셨을 것으로 짐작한다. 단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성경은 방주의 크기가 정확히 어떠했는지 밝히고 있는 반면, 방주의 모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다소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방주

를 기록함에 있어서 ‘테바(tebah)’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방주 이외에 단 한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바로 아기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였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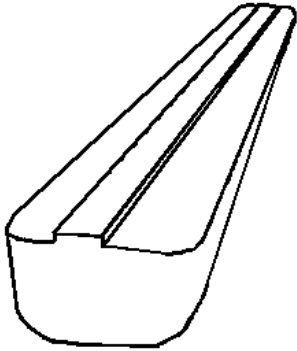
‘테바’라는 단어가 한 번은 엄청나게 큰 배를 나타낸 반면, 다른 한 번은 작은 바구니를 나타내고 있다. 둘 다 물 위에 떠 있었으며, 위가 덮여 있었고 생명을 구원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점은 거기서 끝난다. 아기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의 크기가 노아의 방주만큼이나 크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이집트의 바구니가 보통 둥근 모양이었다 하여 노아의 방주가 둥근 모양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테바’라는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배’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창조과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직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여겨왔다. 그것은 아라랏 산에서 노아의 방주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



의 증언을 (비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기반으로 하기도 했지만, 박스 형태로 간주할 경우 노아의 방주 부피를 계산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과학 초기에는 노아의 방주가 정말 많은 동물들을 담기에 충분한 부피를 지녔는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따라서 이 부피를 계산함에 있어서 방주의 모습을 박스의 형태로 가정하면 계산과 비교가 간편해진다. 그리고 이전에 다루었던 것과 같이, 노아의 방



주 삼층을 하나의 평면으로 펼쳐놓으면 축구장 크기의 한 배 반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 위에 떠 있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의 모습이 박스 형태를 지닌다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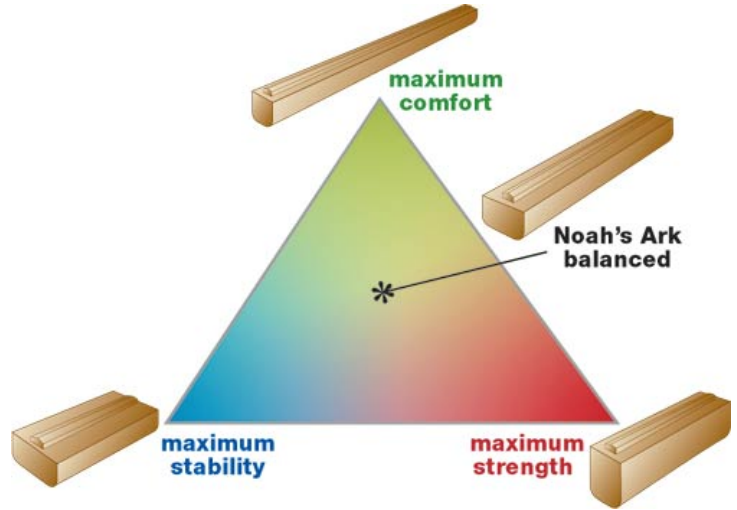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지게 되는 궁금증은 바로 안정성이다. 노아의 방주가 엄청난 격변으로 일어난 홍수를 견디며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구조물일까? 이 점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92년 한국 창조과학회는 한국 국가출연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에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사기술연구소는 당시 선박의 안정성 연구에 한국 최고 권위자였던 홍석원 박사를 팀장으로 한 9명의 전문 연구팀을 구성하여 노아의 방주 안정성을 실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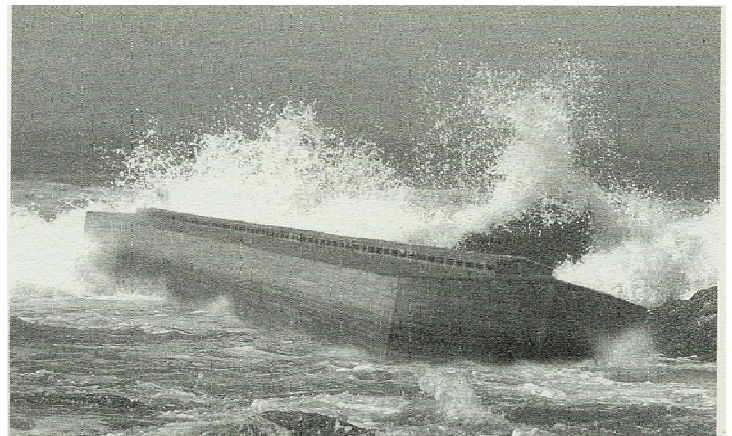
그들은 노아의 방주 크기를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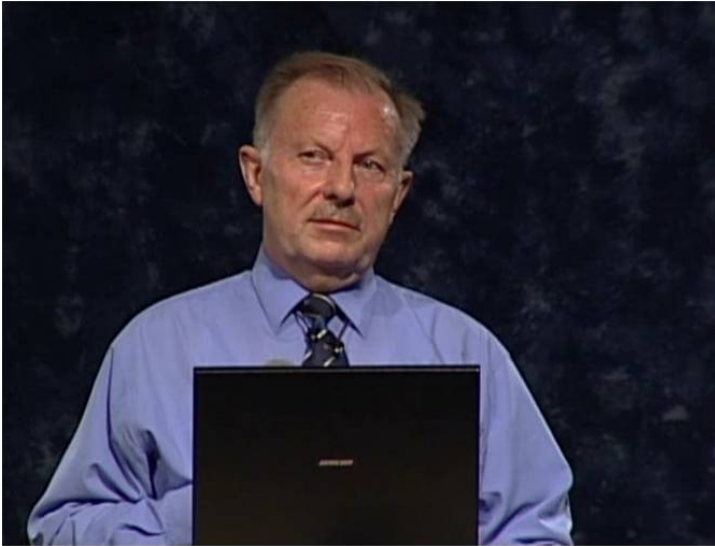
하고, 노아의 방주 모습을 박스 형태로 가정하여 실험용 방주를 실제 크기의 50분의 1로 축소, 제작하였다. 그리고 해사기술연구소의 대형수조(길이 200m, 폭 16m, 깊이 7m)에서 인공적으로 설정한 다양한 높이, 강도, 속도의 조류 및 파도, 바람들을 만들어 다각적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노아의 방주



의 상대적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부피를 가지면서 길이, 폭, 넓이의 비율이 다른 12척의 다른 모형의 배를 비교한 결과, 배의 높이가 같은 경우에 노아의 방주가 가장 최적인 복원안정성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가 지각 변동을 동반하면서 일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바다에서의 지진은 쓰나미를 일으킨다. 그런데 해변에 도착하는 쓰나미 파도의 높이는 수십 미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 하지만 쓰나미가 깊은 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해수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 인해 물 위로 떠오르고 난 후에는 쓰나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 하여도 홍수가 잔잔한 물결은 아니었을 것이고 상당한 높이의 파도를 견디어





워너 기트 (Werner Gitt)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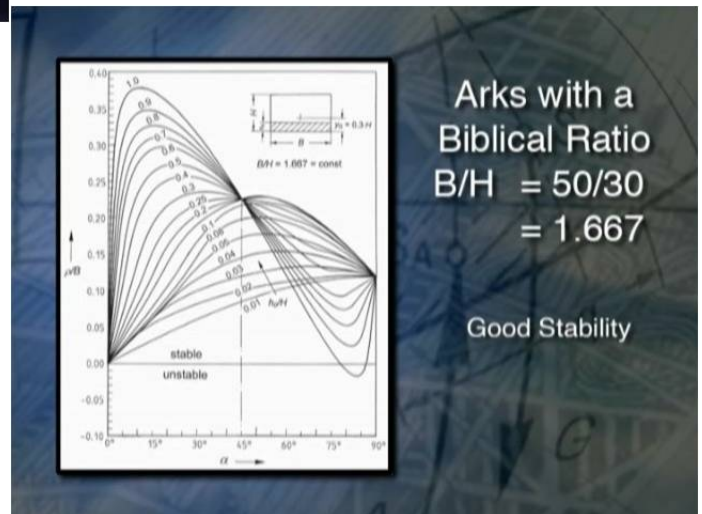
야 했을 텐데 노아의 방주는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홍석원 박사 팀은 노아의 방주는 30m가 넘는 파도에도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워너 기트(Werner Gitt)’ 박사는 배의 안정성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제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실 때 방주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비율도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가장 적절한 양의 나무로 가장 안정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고, 반면 경제성을 무시하고 안정성만을 따진다면 배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너 기트 박사는 당시 이 비율을 아는 분은 하나뿐인 분 뿐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노아의 방주 비율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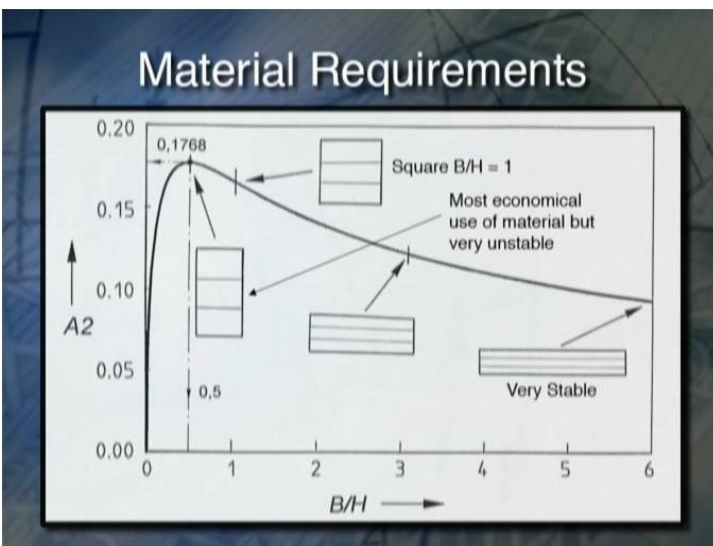
먼저 가장 경제적인 비율은 폭을 좁게 하고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되어지는 나무의 양은 적으나 예상대로 안정성은 제일 취약하다. 따라서 안정성을 극대화하자면 폭을 넓히고 높이를 좁히는 것인데, 또한 예상대로 사용되어지는 나무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나무의 양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율은 무엇일까? 계산 결과, 그는 1.667:1이라는 수치를 얻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비율이 (너비 50: 높이 30) 바로 그



렇다. 배가 1.667:1이라는 비율을 가질 때, 대부분의 기울어짐에서 안정성을 보여준다. 대략 77도 이상으로 기울어져야 배가 뒤집힌다는 말이다!

성경의 한 구절에서 나타난 배의 크기. 그러나 그 크기들이 지니고 있는 비율의 비밀은 실로 컸다. 가장 경제적이면서 또한 안정적으로 배를 지을 수 있는 비율. 과연 노아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배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지었다는 기록도 없다. 그렇다고 노아가 과학 기술로 수차례 실험한 결과로 얻은 것은 더욱더 아닐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물 위에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배의 비율도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가능할 뿐이었다. 



11월의 추천도서



추천도서 I

거울속의 아버지

저자: 패트릭 몰리
데이비드 델크



책소개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준다. 자녀들에게 바른 행동만을 요구하기보다 그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것이 이 책의 조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가족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방법, 당신의 자녀들에게 뿌리와 날개를 모두 달아 줌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실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척근방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교육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와 아이와의 관계를 비추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추천도서 II

좌절된 꿈의 치유

저자: 데이빗 A. 씨맨즈
옮긴이: 이갑만



책소개

<상한 감정의 치유>의 저자 데이빗 씨맨즈가 쓴 또 하나의 역작. 이 책은 코흘리개 시절 소중하게 품었던 당신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준다.

작가 소개

데이비드 A. 씨맨즈 -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 인도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했다. 애즈베리, 드류, 하스포트에서 수학했다. 현재 켄터키 주 월모어 소재 애즈베리 신학 대학원의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내 헬렌과 플로리다 주 노코미스에서 살고 있다.

훈육하라 사랑하라 XVII

<먼 안목을 갖고 자녀를 대하라>

신율미

지난 해부터 여러 달에 걸쳐 자녀 훈육의 방법들과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길에 대해서 공부해왔습니다. 자녀 교육 시리즈 마지막편이 되는, 이번호에서는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공부합니다.

I. 결혼생활의 주기

오늘날 이혼이나 혼자 된 부모 등으로 인해 결혼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부부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두 사람은 상당 세월을 자녀 없이 둘이서만 지내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최근 변화된 출산율 등으로 인하여 부부가 자녀 없이 지내게 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부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을 자녀 없이 지내게 될까요? 70년대에 결혼한 부부는 대체로 22년, 즉 그들의 결혼생활중 거의 절반의 세월을 자녀가 장성한 후 부부끼리만 지내게 될 것이라고 베인(Bane)은 그의 저서 “Here to stay, American Families in the Twentieth Century” 에서 서술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결혼상태를 유지한다면 자녀가 장성한 후 당신의 배우자와 둘이서만 지내게 될 시간

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즉, 한 부부의 결혼에 있어서 50% 정도의 시간은 자녀를 낳기전과 그들이 집을 떠난 후의 세월이 차지하게 됩니다.

부부가 상당한 세월을 둘이서만 보내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관계를 키워가고 생동감있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상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입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갈수록 그 친밀감이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순리인 반면 부부관계는 그 친밀함이 계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자녀들은 청년으로 자라 그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성장해갑니다. 성경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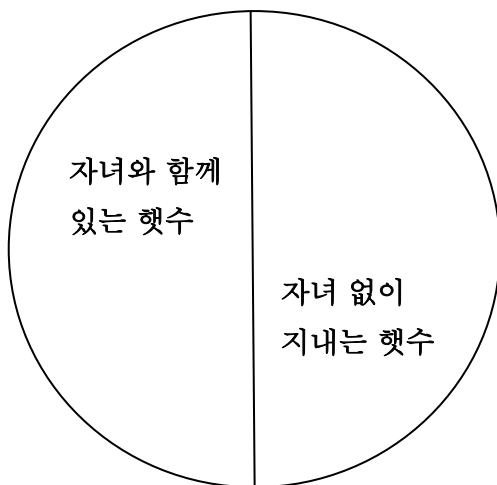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몸이 될 것이다.”[창2:24](현대인)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몸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막10:7,8](현대인)

장성하여 혼인한 자녀는 결혼과 함께 그 배우자에게 친밀히 연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연합해야 할 존재는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II. 결혼을 키워가려는 노력

당신의 전체 결혼생활을 통해 당신의 결혼과 자녀양육을 먼 안목에서 지켜가려면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부모가 되되 배우자와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를 키워가도록 애



쓰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는 제1의 가치로서 당신 일생에 최상의 시간을 드릴 만한 관계임을 자각하십시오.

당신이 더욱 친근한 부부관계를 키워가려고 노력할 때 더불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 나와는 다른 배우자의 기질이나 성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격이 성숙합니다.
- 배우자를 가장 친근한 친구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차이를 해결해감으로써 더욱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 자녀가 떠난 뒤의 미래의 결혼생활을 예비하게 됩니다.

당신이 결혼생활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배우자를 존중하라
2. 결혼생활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나가라
3. 둘만의 값지고 유쾌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라

이 세 영역을 훑어보면서 당신은 각 영역에 있어서의 당신 부부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를 존중하라

앞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급하였듯이 존중은 어느 관계에서건 절대 필요한 자세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당신을 점검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배우자를 존중합니까? 아래의 도표(도표1)를 보고 당신

| | (도표1) 당신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 항상 | 대체로 | 가끔 | 별로 | 전혀 |
|----|---|----|-----|----|----|----|
| 1 | 당신은 배우자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를 용납하는가? | | | | | |
| 2 | 그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질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 | | | | |
| 3 | 배우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가? | | | | | |
| 4 |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과 반대되는 자기의 견해를 기꺼이 표현하는가? | | | | | |
| 5 | 그가 화났을 때 당신은 그 화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가? | | | | | |
| 6 |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만큼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가? | | | | | |
| 7 | 그가 낙담했을 때 격려해주는가? | | | | | |
| 8 | 당신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자가 하도록 유도하는가? | | | | | |
| 9 | 배우자가 감정이 상했을 때 그를 지원해주는가? | | | | | |
| 10 | 당신은 배우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해주는가? | | | | | |
| 11 | 결혼생활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당신이 내리는가? | | | | | |
| 12 |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당신은 당신 의견이 그의 의견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는가? | | | | | |
| 13 | 누가 배우자에게 질문할 때 당신이 대신 답하는가? | | | | | |
| 14 | 배우자의 주요 관심사를 알고 있는가? | | | | | |
| 15 | 그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지원해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가? | | | | | |
| 16 | 배우자가 그 나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가? | | | | | |
| 17 | 당신이 잘못했을 때 당신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가? | | | | | |
| 18 | 당신은 배우자가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격려하는가? | | | | | |

의 반응을 점검해보십시오.

당신의 반응 중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십시오. 표시한 각각의 질문을 평가해보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노력해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영역에서의 향상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표시한 다른 항목들을 훑어보고 훗날 당신이 변화를 기대하는 다른 영역들이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2.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라

(1) 긍정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당신을 아래의 도표 (도표2) 를 이용하여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배우자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점검해보는 도표에서의 당신의 반응을 훑어보고, 다음 일주일 동안 특별히 노력하고 싶은 영역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 배우자에게 찬사를 보낸다. ()
- 배우자에게서 발견한 장점을 그에게 말해준다. ()
- 배우자의 관심사나 취미에 흥미를 갖고 격려해준다. ()
-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
- 배우자가 낙담했을 때 그를 격려하려고 애쓴다. ()
- 가정일을 돌봐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

당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배우자의 습관이나 성격, 또는 행동방식을 몇 가지 적으십시오.

- _____
- _____
- _____

위에 적은 것들을 가지고 당신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비판합니까?

예 () 아니오 ()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당신의 태도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까?

(2) 배우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배우자와의 좀더 깊이 있고 질 높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부부관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 (도표3) 를 보고 진정한 만남과 막연한 만남간의 차이점을 검토 하십시오.

당신이 아래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실천하고 진보하고 싶은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 마음을 배우자에게 집중한다. ()
-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 ()
- 이 만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킨다. ()
- 배우자가 말하는 동안에는 내가 할 말을 생각치 않고 경청한다. ()
- 갈등 중이라도 긍정적이고 사랑스런 말을 사용한다. ()
- 배우자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충분히 의사를 나누려고 애쓴다. ()
- 배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
- 밝은 표정을 한다. ()
- 몸의 자세는 배우자를 향한다. ()
- 배우자 가까이애 앉는다. ()

서로를 향한 집중된 관심을 계획함에 있어서 긍정

적인 대화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시의 필요를 표현하고 또한 그의 필요에

| (도표2) 최근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 때는 언제입니까? | 어제 | 지난 일주일에 | 일주일 이상 |
|------------------------------------|----|---------|--------|
| 배우자에게 찬사를 보냈다. | | | |
| 배우자에게서 발견한 장점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 | | |
|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였다. | | | |
| 배우자의 관심사나 취미에 흥미를 보였다. | | | |
| 그가 낙담한 것을 느끼고 그를 격려하려고 애썼다. | | | |
| 배우자가 가정의 여러 책임을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 | | |

| 당신은 배우자와 어떤 종류의 만남을 갖는가? | | |
|--------------------------|---|---|
| | 배우자와의 진정한 만남 | 배우자와의 막연한 만남 |
| 당신의 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이 배우자에게 집중됨. 배우자가 할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음. 짧은 시간 만큼이나마 분산시키는 어떤 요인도 용납치 않음. 배우자가 말하는 동안에는 당신이 할 말을 생각치 않고 잘 들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문제나 생각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 쉽게 분산된다. 마음을 배우자에게 맞추기가 어렵다. |
| 당신의 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배우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쓰며 그의 관심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한 말을 반복해 달라고 하기도 한다. 배우자가 하는 말에 무심한다. 배우자가 갖고 있는 관심사나 흥미에 무반응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다. |
| 언어 이외의 의사전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 본다. 밝은 표정 배우자를 향해 몸을 돌린다. 사랑스런 몸짓(손을 잡거나 안는 등) 배우자 곁에 앉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선이 배우자에게서 다른 사물로 왔다 갔다 한다. 몸의 자세도 배우자에게서 멀다(등을 돌려 앉거나 인터넷이나 잡지를 봄) 배우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는다 |

귀를 기울이십시오.

(3)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 자라가십시오.

바람직한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대화의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뛰어나고도 실제적인 책으로는 노만 라이트의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3.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데이트를 다시 시작하라

당신이 결혼하기 전 당신의 배우자와 가졌던 멋진 데이트 시절을 기억합니까?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십시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 저녁 시간을 구별해놓으십시오.

언젠가 자녀들이 집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이 부부관계에서 자라가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떠나간 후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다정한 친구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기간 동안 부부간의 친밀함을 키워가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떠나간 후 피차에 대해 더이상 사랑을 못 느끼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성격적인 마찰로 분을 내는 일이 잦을 것입니다. 이부분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 배우자와 좀더 친밀해지기 위해 이제껏 당신은 무엇

을 해왔습니까?

- 최근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당신 부부만 외출을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 데이트하는 날 밤에 당신 부부가 가고 싶은 곳을 네 군데 들어보십시오.

- 1.
- 2.
- 3.
- 4.

- 아이들 없이 둘이 외출할 때 배우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 네 군데가 어디인지 물어보십시오.

- 1.
- 2.
- 3.
- 4.

두 사람이 공히 원하는 곳을 표시하십시오. 조만간

에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구상하십시오. 공통의 관심사를 찾지 못했다면 서로 의견을 나누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논하여 한달에 몇 번이나 정기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십시오.

1. 일주일에 한 번()
2. 한달에 두 번()
3. 한달에 한 번()
4. 기타: _____

부부관계를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그 외의 가능한 시간을 두 가지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나 토요일 오전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아침시간...)

- 1.
- 2.

당신이 가장 힘들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1. 배우자를 존중한다. ()
2. 긍정적인 자세와 진정한 만남을 통해
3.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켜나간다. ()
4. 자녀 없이 둘만의 유쾌하고 질 높은 시간을 갖는다. ()

아래의 공란에 당신의 결혼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 1.
- 2.


이제 이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틀 체이즈가 주장하는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필자 후기>

그 동안 자녀 교육 시리즈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적용하면서 적지 않은 유익이 되기를 바라기도 해왔습니다. 베틀 체이즈의 자녀 훈육에 대한 책을 읽고 적용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아이들에게 좀더 성경적이고 유익한 훈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다른 부모님들도 그런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달에 걸쳐 글을 써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베틀 체이즈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적용한 결과를 첨부하면서 나누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글 쓰기 힘들었던 단원이 바로 이 마지막 단원입니다. 저에게 과연 이 단원을 쓸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때문에 오래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쓰는 내용과 저의 실제 삶이 일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펜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의 실제 삶과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일치 되지 않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네 이웃을 판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단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나보다하고 생각했어야 선한 생각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런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달에 걸쳐 무리없이 편집해주신 우리 하나 되어 편집부 여러분과 꾸준히 읽어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 단원까지 글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저는 자다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합니다.
 제 아이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나 악함,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시 34:7).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닥칠 문제들로 인해 두려울 때
 제 마음에 첫 번째로 생기는 충동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소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너와 네 아이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시 91:9-11).
 당신의 영적인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탄의 하수인들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소서(단 6:22).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약한 자들까지도 보호하시는
 자비로운 주님과 능력의 천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히 1:14).

하나님,
 이제는 제 아이들이 영원토록 당신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아이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삶의 위험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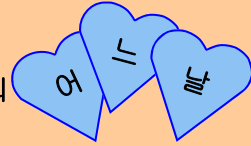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처: 자녀를 위한 사랑의 기도 - 데이비드 & 헤더 콕 지음

교회행사

- ◆ 11월 10일 (토) 고등부 football 대회 (MD)
버지니아 캠퍼스 바자
- ◆ 11월 18일 (일) 추수감사절 예배 (MD/VA)
- ◆ 11월 23일 (금) - 24일 (토) 터키볼 대회 (MD)
- ◆ 11월 25일 (일)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안수식 (MD/VA)

헬로쉽의



😊 평신도 교사 기도회에서

장승민 목사: (몇몇 젊은 교사들을 바라보며) 헬로쉽 교회에 와서 박사님들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어졌어요.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고...

OOO권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와이프들한테 참 잘하는거 같아요.

여러 권사님들의 젊은 교사들에 대한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처음 화제를 꺼냈던 장승민 목사 머쓱한듯이 하는 말, "사실은 저도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집안일도 잘해요"



축! 세례! (왼쪽부터, 김요한, 장미진, 엄영희, 정하나)

*발행인: 김원기 *편집위원: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복진웅, 이창환 안선희 *인쇄: KOREA Monitor

Washington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